

# 영어퀴즈로 알아가는 부처님 세상

## 부산 흥법사 어린이 불교영어퀴즈대회 'What is the Buddha's name?'

불교문화를 알리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는 어린이 불교영어퀴즈대회 '제1회 Hello! 범종을 울려라!'가 흥법사에서 개최됐다. 흥법사 개산 11주년을 기념해 한나라문화재단(이사장 심삼이) 주최하고 흥법사 및 국제포교사회 부울경지부(지부장 최길차)가 주관한 이번 불교영어퀴즈대회는 초등학교 4·5·6학년 어린이 50여 명이 참가해 약 2시간 동안 열띤 경합을 벌였다.

부에는 사찰에 대한 상식부터 전반적인 불교문화에 대한 문제가 주관식으로 출제돼 탈락자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최후의 1인으로 범종 타종에 도전한 달북초등학교 정제훈 어린이(13)는 42번째 문제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정제훈 어린이는 "평소 가족과 함께 교리공부를 했고

### 초등 4·5·6학년 50여 명 참가 달북초등 정제훈 어린이 1등

이번 대회를 위해 부모님께서 주요 예상문제를 표시해주셨다. 범종을 울리지 못해 아쉽지만, 내년에도 참가해 꼭 범종을 울리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1등을 차지한 정제훈 학생에게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품이 수여됐다.

불교교리 퀴즈대회를 영어로 개최한 것은 흥법사가 최하다. 흥법사 주지 심삼이 스님의 국제 및 어린이 포교에 대한 관심으로 기획된 이번 퀴



흥법사와 국제포교사회 부울경지부가 주최하는 어린이 불교영어퀴즈대회 '제1회 Hello! 범종을 울려라!'가 흥법사에서 개최됐다.

즈대회는 대상이 외국인인 아닌 국 내 초등학생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영어로 불교문제를 출시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 출제를 맡은 조계종 국제포교사 부울경지부 50여 명은 이번 대회를 위해 어린이용 불교영어 책을 비롯한 다양한 서적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7개월 동안 번역 작업을 거친 후 부처님 생애, 불교문

화, 불교역사, 생활불교 등 예상문제 100여 개를 앞서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대회에 범종 울린 어린이가 없는 만큼 향후 대회의 난이도 조정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국제포교사 부울경지부는 부산·김해·창원을 중심으로 예상문제 및 불교교리 강의를 진행해 참가하는 어린이의 학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 가을 맞아 경남 지역 차문화 축제 풍성

## 여여정사·울산 불교방송·늘기쁜 마을 등 잇달아

가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차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여여정사의 여여차문화축제, BBS울산불교방송 '차문화한마당',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의 이웃돕기 일일차집 등이 열려 가을의 풍성함을 더했다.

여여정사(주지 정여)는 제3회 여여차 문화 축제를 10월 26일 개최했다. 행사로 두리차회의 차 시연 및 작품사진 전시, 명상관련 책 전시, 음악회 등이 마련됐다. 두리차회는 부산여대 다도부, 한국차인연합회, 원광대 다도회, 해운대 여여선원 다도회, 김해여선원 다도회, 여의주 다도회 등 6개 팀으로 구성된 차회 모임이다. 정여 스님과 밀양시장 박일호, 정홍섭 전 신라대 총장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BBS울산불교방송(사장 오심)은 제6회 '2014 울산 차문화한마당'을 10월 29일 울산 롯데호텔 2층 크리стал 볼룸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개막식에 이어 차차리 경연대회, 차 시음회 및 시연회, 차 관련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울



가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는 다양한 차문화 축제가 열렸다. 사진은 늘기쁜마을 소외이웃 돕기 일일차집.

산 차문화 한마당은 2009년 BBS울산불교방송 개국 1주년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축하공연으로 심진식님의 '무소의 뿔처럼', '아버지의 노래' 및 BBS울산불교방송 합창단과 월봉사 월광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BBS울산불교방송 사장 오심 스님은 "울산 차문화 한마당은 울산의 전통 차문화 정신을 계승하고 현대인의 건강도 보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울산 차밭 복원 등 연계하는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소득 이웃을 돌아보는 개막식에 이어 차차리 경연대회, 차 시음회 및 시연회, 차 관련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울

산 차문화 한마당은 2009년 BBS울산불교방송 개국 1주년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축하공연으로 심진식님의 '무소의 뿔처럼', '아버지의 노래' 및 BBS울산불교방송 합창단과 월봉사 월광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BBS울산불교방송 사장 오심 스님은 "울산 차문화 한마당은 울산의 전통 차문화 정신을 계승하고 현대인의 건강도 보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울산 차밭 복원 등 연계하는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장 지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빛내주는 것을 보니 아직 세상에 희망과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것 같다"며 "만나는 모든 이들을 부처님처럼 섬기고 소의 받거나 차별 받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은 모연금은 사단법인 늘기쁜 마을을 통해 산하기관 동승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하사랑나눔 푸드마켓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태교 템플스테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헤도)은 11월 9일 오전 9시~오후 4시 까지 하루 체험형 태교 템플스테이를 연다.

프로그램은 피톤치드를 이용한 피톤치드 명상, 차원을 높이는 태교의 개념과 태교 실제 사례,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는 'we are the 대장부', 일상의 마음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행복 염주쟁이', 숲길을 걸으며 하는 태교 '대장부로(路) 걷기', 태교를 주제로 나누는 스님과의 차담 '수행의 향기를 마시자', 마음의 밝음을 환기하는 '마음의 불', 대장부발걸음 등이다. 070-4650-5535 하성미 기자

## 포항보경사 10월 26일 무문관 상량식

### 진경산수 문화축제 음악회도

포항 보경사(주지 철산)는 10월 26일 무문관 상량식과 함께 '진경산수 문화축제 음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포항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덕화 스님과 회원스님 등 사부대중 2천 여명이 참석했다. 무문관 건립을 위해 동안거 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경사 주지 철산 스님은 "청풍납자들이 모여들고 선지식들이 법당을 나누는 수선

도량의 중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와함께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의 발원지로 유명한 보경사는 경북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내연산 일원을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내연산 진경산수의 정취와 진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매년 가을철을 맞아 음악회를 마련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대구 통천사 부처님 진신사리탑 봉안 법회

대구 동구 야양교 조계종 통천사(선지 스님)는 10월 25일 스리랑카에서 온 부처님 진신사리탑 봉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 중앙승가대학장 종범 스님, 파계사 주지 허은 스님, 해인사 전 강주 혜월 스님, 대구사리탑지연합회 회원 사찰 스님들과 지역기관, 단체장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했다.

대구 동구 야양교 조계종 통천사(선지 스님)는 10월 25일 스리랑카에서 온 부처님 진신사리탑 봉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 중앙승가대학장 종범 스님, 파계사 주지 허은 스님, 해인사 전 강주 혜월 스님, 대구사리탑지연합회 회원 사찰 스님들과 지역기관, 단체장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했다.

전 중앙승가대학장 종범 스님은 "깨달음은 화, 화신인 부처님 진신사리는 세상의 지혜, 자비를 나타내주고, 그 지혜로 나의 존재를 찾아가는 일대사가 불교다. 깨달음은 대상, 인연, 현상에 꼬달리지 않고 모든 현상을 바로 보는데서 생긴다"면서 "사리탑에 예경, 공경하여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자기 성장의 일대사임을 알아 일심으로 닦아 나아가자"고 법문했다.



통천사 진신사리 봉안식

통천사 주지 선지 스님은 지난달 9월 17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신불교운동 101주년 기념법회에 참석, 스리랑카 마하보디 사원의 후파티사 스님으로부터 진신사리탑의 공물을 받았다.

주지 선지 스님은 "진신사리인연으로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 성취할길 얻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팔공산 거조사, 나한대재 육법공양

대구 팔공산 거조사(주지 태관)는 10월 25일 영산전 앞 마당에서 나한대재를 봉행했다.

육법공양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마가 스님, 원후 스님, 테너 성규 정 씨 등이 출연한 힐링콘서트가 열렸다. 국보 14호 오백나한상을 모신 거조사 나한대재는 고려시대 국난극복 기원하며 시작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문수산 축서사, 보살계수계대법회

봉화 문수산 축서사(회주 무여)가 윤달을 맞아 11월 8일 오전 11시 보살계수계대법회를 개최한다. 계단은 전계대화상 종진 스님, 갈마야사리 무여 스님, 교수아사리 무연 스님으로 구성된다.

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청정음악회에서는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축서사 바라밀 합창단이 출연한다. 특히 만발차공양 시간에는 참가자 전원이 축서사 진신사리탑에 함께 차 공양을 올릴 예정이다. (054)672-7579 하성미 기자

## 봉화산 정토원 불교교양대학 첫 개설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불교교양대학이 문을 열었다. 진영포교당(주지 한파)과 봉화산 정토원(원장 선진규)은 중부 경남 불교교양대학(가칭)이란 이름으로 지난 10월 25일 불교교양대학을 공동으로 개설했다. 중부와 경남 지역의 불자들이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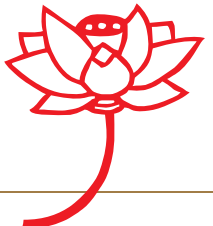
강의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 법문 중심적 강의와 경전강해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3주차에서는 수강생들의 발표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강의는 10월 25일~2015년 1월 10일 진영문화센터 한빛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 까지 총 2시간이다. (055)342-2991~2 하성미 기자

강의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 법문 중심적 강의와 경전강해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3주차에서는 수강생들의 발표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어떤 태교법보다 우수한 '관음태교'-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를 '관음태교'로 낳아 기르자!

관음태교는 유대인 태교법 등 어떠한 태교법과도 차원이 다른 영혼체 중심의 태아행복태교법입니다



**관음태교-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아이와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는 영물태교법**  
관음태교는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태교법이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널리 보급할 것을 부촉하신 불교 교유의 영물태교법입니다.



▲관음태교로 출생한 아이를 소개하는 자재만현 큰스님

태아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첫째는 태아에 좋은 영혼체가 들어야 하고, 둘째는 이미 잉태된 태아 영혼체에 생인 악업의 업장(業障)을 소멸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바로 이 두 가지를 해결하여 아이와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는 영물태교법입니다.

**태교-평생교육보다 중요해**  
태교(胎敎)가 출산 후의 평생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사주당 이씨가 지은 <태교신기>에서는 "스승의 10년 가르침보다 어머니의 태교 열 달이 낫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태교는 아이의 '인성과 지능'을 형성하는 기본설계도 역할을 하는 최초의 교육으로서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유대인 태교의 핵심**  
1) 닳다 임신법  
① 생리 첫 날부터 5일간 생리가 끝난 후 7일간 부부관계를 피합니다. 즉, 생리 시작일로부터 12일간의 금욕기간입니다. ② 생리 시작 후 12일째 밤이 되면 '미크바'라는 옥조에서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부부관계를 가집니다. 이 기간은 대개 배란일 하루나 이를 전 정도로 임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태담(胎談)태교  
유대인들은 태아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부터 꾸준히 탈무드(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율법서나 구약성서(토라)를 태아에게 들려줍니다. 어머니도 지혜와 바른 정신을 함양할 수 있고 태아에게 유대인의 정서와 정신을 기르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태교를 한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여기고 람베(뉘화자)가 신경쓰고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관음태교의 우수성**  
그러나 아무리 유대인 태교법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불교 교유의 태교법인 관음태교를 따를 수 없습니다. 유대인 태교법은 근본적으로 영혼체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며 행복과 불행의 원인(업)과 과보에 대한 통찰이 없어 금성한 생을 잘 살기 위한 육체 중심의 태교교육에 그칩니다. 그래서 출생 후의 지능 및 재능개발에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관음태교는 태아의 본체인 영혼체의 존재와 업과 과보의 행복불행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가기 위한 영혼체 중심의, 심성 정화를

바탕으로 하는 진인적인 태교법입니다. 유대인 태교법은 부모 중심의 자력태교로서 훌륭한 배우자나 태아(영혼체)의 인연 선택이 불가능하고 태아의 업정소멸이 가능하지 않아 출생 후의 불행과 고통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 중심의 타력태교법으로서 결혼 전부터 태교가 시작되어 좋은 인연의 배우자와 태아 영혼체와의 만남이 가능하고 또 태아의 업정소멸을 통해 미래의 불행은 소멸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음태교의 방법**  
첫째, 관세음보살님께 3배하고, 귀의·참회하면 서 주스·생년·이름을 고합니다.  
둘째, <관세음보살보문품>을 1독 하고 '불정심 관세음보살모드라니'를 5, 15, 32회 독송합니다.  
셋째, 간절한 마음으로 태교발원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잉태 전에는 훌륭한

한 아이 잉태를, 잉태 후에는 태아의 업정소멸과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발원합니다.  
**넷째,**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간절하게 소리 내어 10~30분 정도 부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면 좋으며, 잉태 후에는 태담(胎談)태교를 병행합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아와의 대화를 통해 언어·이해의 시기를 전해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겠다는 어머니의 거듭된 확신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관음태교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성인과 총명 유능한 국가적 인재를 길러내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불교 교유의 태교법입니다. 훌륭한 어머니는 훌륭한 선택을 합니다. 아이를 위한 가장 훌륭한 선택은 바로 관음태교입니다.

##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안내

- 현지사 대전분원 정기법회(253회)
- 11월 16일 (일), 오전 9시 30분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 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기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가길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명상 법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운행됩니다.  
▪ 문의 033)243-1787, 1795



관음태교 체험발표